

신동빈 “빼빼로, 매출 1조 글로벌 톱10 브랜드 만들자”

〈롯데 회장〉

‘원롯데 통합 전략회의’ 주재

유럽서 초콜릿 생산시설 점검
한·일 롯데, 빼빼로 육성 협력
유통망 효율화 등 청사진 그려

“해외매출 1조 메가 브랜드 육성
강력한 실행력 발휘해 달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일 롯데 식품 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빼빼로’를 매출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특히 신 회장은 ‘한국 상품’ ‘일본 상품’이 아닌 ‘롯데 상품’으로 전 세계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신 회장은 유럽 현지에서 한·일 롯데 식품사 핵심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롯데 통합 전략회의’를 주재했으며, 벨기에의 길리안과 폴란드의 롯데 베델(E. Wedel) 등 한·일 롯데가 인수한 회사의 초콜릿 생산 시설을 점검했다. 영국으로 건너간 신 회장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사 토마스 헤더윅과 디자인 전략을 논의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한·일 롯데 식품사 경영진들과 유럽 출장을 통해 한·일 롯데 식품사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찾는데



신동빈 롯데 회장은 벨기에와 폴란드에 위치한 글로벌 식품 생산거점을 찾아 현장경영을 살피는 동시에 ‘원롯데 통합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회장(가운데)이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소재의 길리안 생산 공장을 점검하는 모습. /롯데지주

주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 대표,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다마쓰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 한국과 일본 롯데 지주사 및 식품사 경영진들이 출장에 동행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신 회장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는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사 경

영진이 모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롯데의 첫 번째 협력 전략 상품인 ‘빼빼로’를 매출 1조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일 롯데는 2035년까지 빼빼로를 ‘글로벌 톱10·아시아 넘버원’ 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양사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빼빼로의 매출 1조원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베트남·인

도 등 기존 진출 국가에서의 시장 확대, 잠재력 높은 신규 진출 국가 개척, 공동 소싱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검토했다.

빼빼로를 포함해 한·일 롯데의 대표 브랜드 상품을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 해외 시장 공동 마케팅 ▲ 해외 유통망 효율화 ▲ 신제품 관련 양국 교차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그렸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한국 상품, 일본

상품이 아닌 ‘롯데 상품’이라는 브랜드 중심으로 고객과 소통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양사 대표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글로벌 유통망을 효율화할 계획이며, 신제품 출시에 앞서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 협력해 테스트 베드 역할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 회장은 “한·일 롯데가 긴밀하게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어달라”고 강조하며 “해외매출 1조원이 넘는 다양한 메가 브랜드 육성에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출장에 동행한 한·일 롯데 식품사 경영진은 벨기에의 길리안 공장 폴란드의 베델 공장을 번갈아 방문해 제조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생산 현장에서의 시너지 방안도 모색했다.

롯데웰푸드는 2008년 세계 3대 초콜릿 브랜드인 길리안을 인수했으며, 일본 롯데는 2010년 폴란드 제과회사인 베델을 인수했다.

회의에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일 롯데 베델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오픈한 ‘초콜릿 팩토리 뮤지엄’ 개관식에 참석했다. 초콜릿 팩토리 뮤지엄은 연면적 8738m2(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체험관, 생산 설비, R&D 시설을 갖췄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투자증권서도 ‘친인척 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액 상황… 절차상 문제여부 따져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우리투자증권(옛 우리종합금융)에서도 실행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 대출은 이미 상환됐지만 당시 대출 절차상 문제 여부 등은 당국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금리는 연 6.5%였다.

해당 대출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대출은 2022년 2월 말 전액 상환된 상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1번 ‘흔들리는 100년 은행’서 계속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영업장인 김 모씨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힘든상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임 회장의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새 지주 회장, 새 은행장 체제에서 1년이 넘게 지속됐는데 사건을 수습하는 방식에서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신뢰를 갖고 바라보기보단 뭔가 오히려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80세 이상 어르신 242만명 충남·대구 인구 넘어섰다

지난달 국내 80세 이상 인구가 역대 최다인 240만 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최연장자 연령대의 전국 거주민 수는 충남과 대구 인구를 넘어섰다.

8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242만 명으로 나타났다. 80대가 209만 명, 90대가 31만 9000명, 100세 이상이 8737명이다.

행안부, 8월 말 기준 ‘역대 최다’
15년 전 85만명 보다 184% 늘어

전국 평균연령 45.2세까지 치솟아
전남 평균 48.9세, 세종은 39.0세

이들 그룹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1006만 명)의 24%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1/4가량이 80세 이상의 최연장자 그룹인 셈이다. 80세 이상은 15년 전인 지난 2009년 8월 말(85만 명)에 비해 무려 184%(+157만 명) 늘어났다. 증가 폭이 같은 기간 65세 이상(93%·+486만 명)의 감절 수준이다.

80세 이상은 충남도를 넘어 대구시 인구까지 따라잡았다. 거주민 수에서 충남(213만)과 대구(236만)는 전국 80세 이상(242만)보다 각각 29만 명, 6만 명 적다. 이 최연장자 그룹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경북(254만 명) 역시 수개월 내에 앞지를 전망이다. 8월 말 기준 경북 인구는 전월대비 2026명 줄었

다. 또 여성의 수가 압도적이다. 80대는 여자 132만·남자 77만, 90대는 여자 24만·남자 7만, 100세 이상은 7155명·남자 1582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연령은 45.2세까지 치솟았다. 이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평균수명과 비슷하다. 국내 8개 주요 시·9개 도 가운데 전남이 48.9세로 가장 많았고 경북(48.5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48.0세), 전북(47.8세), 부산(47.0세), 경남(46.4세), 충남(46.2세), 충북(46.2세), 대구(45.7세) 순으로 많았다. 서울(44.8세)과 경기(43.4세)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세종(39.0세) 평균연령은 17곳 중 유일하게 40세 미만이었다.

여성만 놓고 보면, 전남(50.7세)과 경북(50.2세)이 주민들 평균나이가 된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종 여성들(39.5세)도 마흔 살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 여성은 각각 45.5세, 44.3세였다. 부산 여성은 48.3세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5세 이상의 절반 수준인 552만 명에 그쳤다. 총 인구의 10.8%밖에 안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포항수협에서 직접운영하는
동해안 자연산100% 활어회

포항수산업협동조합

포항시 남구 회망대로 1308(송도동)
TEL. 054)256-2770